

# 카잔 하계U대회 6일 개막... 한국선수단 234명 출전

## ‘체조 여왕’ 손연재 ‘도마의 신’ 양학선 U대회 별로 뜬다



6일 개막하는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축제, ‘제27회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빛낼 한국의 스타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유니버시아드에는 세계 톱 클래스의 출전자들이 여럿 출전한다. 또 이 대회를 발판으로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는 선수들도 종종 나온다. 1991년 영국 셰필드 하계 유니버시아드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는 여세를 몰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 선수로 거듭났다. 이번 대회에서도 성적과 인기면에서 모두 주목받는 선수들이 종종별로 퍼져 있다.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 손연재(19·연세대)와 ‘도마의 신’ 광주출신 양학선(21·한체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손연재는 올 시즌 출전한 네 번의 국제 체조연맹(FIG) 월드컵에서 매번 종목별 메달을 목에 걸며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초 열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목에 건 뒤 후프와 끈종 종목별 결선에서도 금메달을 잇달아 따내 실력을 뽐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8월 말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량을 최종 점검하는 장이기 때문에 메달을 노리

는 손연재의 각오는 남다르다.

한국 리듬체조는 유니버시아드에서 단절된 동메달만 한번 획득했을 뿐 아직 개인전 메달은 손에 넣지 못했다.

한국 체조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 또한 처음 출전하는 유니버시아드에서 2009년 베오그라드 대회 이후로 끊긴 금메달의 계보를 잇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양학선은 “유니버시아드는 처음인데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다른 나라에서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모르니 훈련 때 보고 어떤 기술을 쓸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출신인 배드민턴 이용대(25·삼성전기) 또한 고성현(26·김천시청)과 함께 나설 남자 복식에서 세계 1위의 위용을 떨칠 예정이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남자 복식에서 정재삼

성진기 코치와 함께 동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는 올림픽 후 새로 조를 짰고성현과도 찰떡궁합의 호흡을 자랑하며 지난 5월 세계 정상에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펜싱에서 ‘1초 오실’ 때문에 통탄의 눈물을 흘렸던 신아람(26·계룡시청)과 여자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지연(25·익산시청) 또한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경계 어린 눈빛을 받고 있다.

지난 대회때는 남자 사브르의 구본길(2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당시 홈그라운드 이점을 등에 업은 중국 선수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며 은메달을 목에 걸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한국 펜싱은 기세를 이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출전한 정상급 선수들의 쿼터를 쫓을 예정이다.

사격의 이대명(25·경기도청)은 이번 대회 가

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 중 한 명이다.

기초 종목 중 가장 정체가 있다는 평가를 듣는 육상에서는 남자 20km 경보의 최병관(22·삼성전자)이 운동화 끈을 짰다.

한편 제27회 카잔 하계 U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70여 개국에서 1만3500여명의 선수들이 육상 등 21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선수단 234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광주 10명·전남 5명) 15명이 출전한다.

광주출신은 배구 진성태(경희대 3), 복싱 이동윤(한국체대2), 레슬링 김지훈(성신양회), 역도 전대운(조선대 3), 체조 김희준·양학선(한국체대 3), 하키 유호연·서인우(조선대 3), 펜싱 최은숙(남부대 4), 배드민턴 홍지훈(경기대 4) 등 10명이다.

전남출신은 배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 카누 최민지(한국체대), 펜싱 이승배(해남군청)·이우리(전남도청), 하키 최진선(목포시청) 등 5명이다.

한국은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1개 종목, 1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래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지금까지 22차례 참가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03년 대구 대회와 2009년 베오그라드, 2011년 선전 대회에서 이룬 종합 3위다.



# 추신수 26번째 멀티히트

## 팀 동료 베일리 시즌 첫 노히트 노런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31)가 안타 2개를 치고 볼넷 2개를 얻어 100% 출루하며 출루 행진에 불을 붙였다.

팀 동료 투수 호머 베일리는 개인 통산 두 번째이자 시즌 첫 ‘노히트 노런’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고 기쁨을 만끽했다.

추신수는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2타수 2안타를 때리고 볼넷 2개를 골랐다. 세 경기 만에 안타를 보태고 시즌 26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한 추신수는 타율을 0.264에서 0.269로 끌어올렸다. 내리막을 타던 출루율도 0.414에서 0.420으로 높였다.

추신수는 1회부터 매섭게 방망이를 들쭉했다.

첫 타석에서 샌프란시스코 우완 선발 투수 팀 린스컴이 제구 난조로 머리를 향해 던진 공에 혼비백산한 추신수는 볼 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5km짜리 직구를 퍼올려 우측 펜스를 향해 날아가는 큼직한 포물선을 그렸다.

타구를 쫓던 샌프란시스코 우익수 헨터 펜스의 글러브를 맞고 담을 넘어가 공을 잡으려던 팬의 글러브를 맞고 다시 그라운드 에 돌아온 것으로 보였다.

2루 삼관 필드 캄브레스는 홈런이라며 손가락을 연방 들렸으나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이 이익을 제기했다. 결국 삼관진은 비디오 판독에 착수했고 2루타로 판정을 반복했다.

시즌 19번째 2루타를 친 추신수는 후속 타

자의 보내기 번트때 3루에 안착한 뒤 조이 보토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렸다.

한편 호머 베일리는 9이닝 동안 볼넷 1개만 줬을 뿐 삼진 9개를 속아내며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무안타로 봉쇄하고 올해 메이저 리그를 통틀어 첫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다.

6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이어가다가 7회 선두 타자 그레고르 블랑코에게 볼넷을 내줘 아쉽게 대기록을 놓친 베일리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후 타자들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109개를 던진 베일리는 마지막 타자 블랑코를 3루 땅볼로 잡을 때까지 156m짜리 광속구를 뿌리며 강한 어깨를 뽐냈다.

최근 노히트 기록을 남긴 것도 베일리라. 그는 지난해 9월 2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삼진 10개를 잡고 볼넷 1개만 내줘 노히트 경기(1-0 승리)를 이뤘다.

메이저리그 현역 투수중 노히트 노런을 두 차례 이룬 선수는 저스틴 벌랜더(디트로이트), 로이 할라데이(필라델피아), 마크 벌리(토론토)에 이어 베일리가 4번째다.

메이저리그 공식 기록 업체인 스태츠에 따르면 베일리는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뒤 다음 선수로 이를 이루기 이전에 연속 노히트 노런을 재현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통산 최다인 7차례 노히트 노런을 수립한 놀런 라이언은 1974년 9월 29일 그해 메이저리그 마지막 노히트 노런(시즌 3호)을 세우고 1975년 6월 2일 시즌 1호 노히트 노런을 썼다. 라이언의 진기록을 38년 만에 이어 받은 베일리는 올 시즌 5승 6패, 평균자책점 3.57을 기록하고 있다.



신시내티 레즈 투수 호머 베일리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280회, 시즌 첫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자 동료들이 경기 종료후 축하하고 있다.

# 패럴림픽 정식종목 ‘보치아’ 광주서 300여명 기량 겨룬다

2013 하이트진로배 전국 장애인 보치아(boccia)대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호남대 광산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장애인 보치아연맹과 하이트진로(주)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00여명의 장애인 보치아선수들이 참가해 1개 장애유형(지체)과 4개 세부종목(BC1~BC4)으로 나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국내 랭킹 포인트가 적용되며 전문체육 선수들간 순위경쟁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시 토대가 된다.

광주선수단은 지난 6월 열린 2013 홍콩 오픈 보치아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한 유진 선수(BC3 개인전 금메달 획득)와 정항하 선수(BC3) 등 총 19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를 먼저 던져 놓고 적색공과 청색공을 각각 6개씩 규칙에 따라 모두 던지거나 골인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 함평골프고 골프 명문고로 거듭난다

## 골프관리과·산업 기계과 농업생명서 체육계열로 개편

함평골프고등학교(교장 정종만)는 농업생명산업 계열의 골프관리과(정원 25명)와 골프산업 기계과(25명)를 2014년부터 체육계열로 변경한다.

함평골프고 관계자는 “골프학과 개편안이 지난 1일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됐다”며 “이에 따라 도 교육청으로부터 골프 시설 개선비용과 학생들의 라운딩 비용 등의 예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과가 체육계열로 바뀐에 따라 학생들의 골프관련 교육과목 이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고, 전남지역 중학생에 한해 모집하던 골프산업기계과는 내년도부터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골프고는 학과 개편에 따른 골프 명문고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초·중학교 우수 선수를 유치해 학교 내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우수 골프코치를 영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골프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본 후쿠오카 오기카구엔고와 업무협약 체결 ▲한·일 고교학생골프대회 개최 ▲우수한 골프연습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함평골프고는 세계적 골프스타 신지아(미래에셋)를 비롯해 이미향(불빅), 전진지(하이트진로) 등을 배출했다.